

갈라디아서: 함께 읽는 성경 공부

이방인 신자도 하나님의 백성에 온전히 속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나요?

갈라디아서는 이방인 신자에게 온전한 소속의 조건으로 할례와 율법이 필요한지를 둘러싼 위기에 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 경계를 받아들여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유는 성령을 통한 사랑의 섬김이 됩니다. 편지의 긴박함은 복음의 진리와 함께하는 식탁에 관한 것이며, 유대교를 적대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편지를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읽기

바울 저작은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수신자들의 위치와 연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남갈라디아설과 북갈라디아설은 편지를 사도행전 및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과 다르게 연결합니다. 바울의 자전적 기록은 핵심 증거이지만 각 방문을 사도행전에 맞추려면 논증이 필요합니다. 논쟁은 바울의 응답을 통해 들립니다. 그가 거부하는 모든 표현만으로 반대자들의 가르침 전체를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참조: 갈 1:1 - 갈 2:14

출처: primary, brown

논증 따라가기

1-2장은 바울의 사명을 변호하고 식탁 교제의 단절을 드러냅니다. 3-4장은 아브라함, 약속, 율법, 자녀 됨을 통해 논증합니다. 5-6장은 자유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칭의의 여러 측면과 율법의 지속적인 역할을 논의합니다. 이 공부는 바울의 유대인 반대자들을 희화화하지 않으면서 은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실천하는 사랑을 함께 살핍니다.

성경 참조: 갈 3:1 - 갈 4:31 · 갈 5:1 - 갈 6:18

출처: primary

복음과 바울의 부르심

갈 1:1-24

유난히 긴박한 서두는 바울의 과거 박해와 그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집니다. 계시에 대한 호소가 모든 배움이나 공동체적 책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여행 일정을 만들어 내지 말고 예루살렘, 아라비아, 초기의 만남에 관해 그가 말하는 내용을 따라가세요.

생각해 보기

바울의 이야기에서 어떤 요소들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바꾸는 데 저항하는 이유를 설명하나요?

공유하는 복음과 갈라진 식탁

갈 2:1-21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인정받은 일과 안디옥에서 게바를 대면한 일을 회고합니다. 함께 먹던 자리에서 물러나는 행동은 누가 참으로 속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칭의와 그리스도 안의 삶에 관한 설명은 종교적 감정에 관한 사적인 논쟁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단절을 다룹니다.

생각해 보기

식탁에서 물러나는 행동은 무엇을 암시했으며, 바울은 왜 이를 복음과 연결했나요?

아브라함의 약속과 율법

갈 3:1-29

바울은 성령을 받은 경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약속과 율법을 구별합니다. 논증은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의 구분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안의 공동 정체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정 역할에 미치는 의미를 논의하지만, 구원에 접근할 자격이 불평등하다는 해석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기

아브라함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이방인의 소속에 요구된 조건에 어떻게 도전하나요?

후견 아래의 삶에서 자녀 됨으로

갈 4:1-31

상속, 자녀 됨, 종살이의 이미지가 바울의 호소를 발전시킵니다. 하갈과 사라의 비교는 그의 논증 안에서 명시적인 비유적 읽기이며 현대 민족들에 서열을 매길 근거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호소는 그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손상된 관계 안에서 신학 논쟁이 전개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기

가족의 이미지들은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다고 믿는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성령으로 빚어지는 자유

갈 5:1-26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할례를 칭의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자유를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 모두에 의해 위협받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섬김과 성령의 열매를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중심에 놓습니다. 열매는 받아들여지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변화된 삶의 방식을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자유를 드러내나요?

짐을 함께 지고 선을 꾸준히 행하기

갈 6:1-18

온유한 회복, 짐을 함께 지는 일, 개인적 책임, 교사를 지원하는 일, 인내는 논쟁을 일상의 실천으로 옮깁니다. 마지막에 외적인 표시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을 대조하며 논쟁을 요약합니다. 새 창조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 몸으로 행하는 돌봄을 중요하지 않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기

공동체는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면서도 책임 있는 행동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나요?

출처

- [primary] Galatians; primary biblical text. Reading references only; no Bible text is reproduced in this resource. <https://ebible.org/eng-web/GAL.htm>
- [brown] Raymond E. Brown,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Doubleday, 1997), chapter 19. Background and scholarly discussion; not an endorsement of every interpretation in this study.

자체 제작한 자료의 글과 이미지: CC BY 4.0. 성경 본문과 제삼자 자료는 제외됩니다.

Pauline Letters · CC BY 4.0 · <https://paulineletters.com/ko/explore/resources/study-galatians>